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술 2023-169

2023.11.30.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소프트웨어

# 라이프시맨틱스(347700)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김소현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약
- ▶ 기업현황
- ▶ 시장동향
- ▶ 기술분석
- ▶ 재무분석
-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 라이프시맨틱스(347700)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선도

## 기업정보(2023/11/23 기준)

대표자	송승재
설립일자	2012년 09월 26일
상장일자	2021년 03월 23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주요제품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디지털 헬스 솔루션, 디지털뉴트리션 외

## 시세정보(2023/11/23)

현재가(원)	2,685 원
액면가(원)	500 원
시가총액(억 원)	275억 원
발행주식수	10,227,950 주
52주 최고가(원)	6,940 원
52주 최저가(원)	2,580 원
외국인지분율	0.62%
주요주주	
송승재	36.42%

## ■ 고객 맞춤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보유

라이프시맨틱스(이하 동사)는 2012년 9월 설립되어 2021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으로, 인공지능이 탑재된 개인건강기록 분석용 B2B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비대면 진료 솔루션, 질환 예측 솔루션 등 디지털 헬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처방 및 관리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호흡기질환 환자와 암 환자의 재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확대, 서비스 수출 실적 보유

개인별 전자건강기록의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확보, 생체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의료 데이터의 보호 및 저장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보건의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 이에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연평균 25.0%의 높은 시장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태국 시장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런칭을 계기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 질병 조기 진단용 의료 AI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진행 중

동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및 운영을 통해 확보한 의료 데이터, 건강기록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의료 AI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사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부암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3종의 의료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동사는 전국의 대학병원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 AI 솔루션의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효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0	26.7	129.4	-36.6	-137.2	-93.1	-349.2	1387.5	-117.8	336.4	-986	250.0	-	-
2021	46.3	73.9	-60.4	-130.3	-62.2	-134.1	-81.54	-29.03	154.9	-563	1290	-	7.42
2022	28.2	-39.2	-56.1	-199.0	-33.5	-118.8	-29.6	-11.27	173.0	-294	936	-	4.41

## 기업경쟁력

###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개발

- 고객 맞춤(B2B, B2C) 디지털 헬스케어용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역량 보유
-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 역량, 의료기기 인허가 대응 역량 확보

### 안정적인 영업망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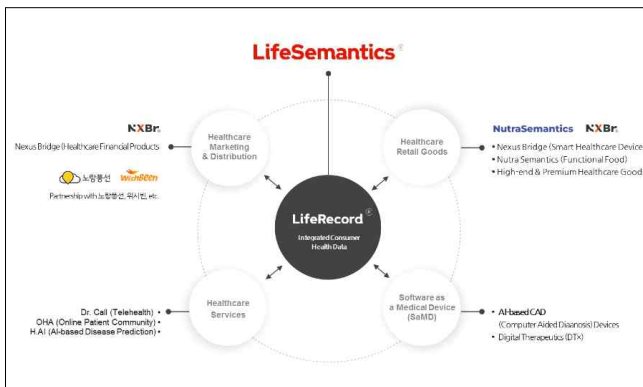
- 국내 주요 보험사에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라이프 레코드(LifeRecord)' 공급
- 국내 상급종합병원, 지역 의원 등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닥터콜' 공급 완료 후 정부의 비대면 진료 운영방침 반영하여 서비스 업데이트 중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동사 주요사업

사업분야	적용분야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개인건강기록 분석 및 관리
디지털 헬스 솔루션	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디지털 치료기기	호흡기질환 환자의 재활 등

### 동사의 사업영역



## 시장경쟁력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년도	시장 규모	연평균 성장률
2023년	1,802억 달러	▲25.0%
2028년	5,497억 달러	

###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현황(2020-2023년)

이용자 수	진행 건수	만족도
1,379만 명	3,661만 건	62.3%

### 지속적인 시장 성장 전망

- 디지털 헬스케어를 경험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디지털 전환 추진으로 인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구성하는 세부 시장 중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시장이 최대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환경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는 환경(E) 부문에서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모든 경영 활동에 국내외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li> <li>○ 동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50%를 재활용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탄소저감활동을 진행하고 있음.</li> </ul>
(사회책임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li> <li>○ 또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경영실적 및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휴가 및 경조금 지급, 건강검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li> </ul>
(기업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사는 이사회와 감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 및 운영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li> <li>○ 동사는 부패 발생 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수행,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보고서를 통해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li> </ul>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 현황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동사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2012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풀라인업(Full Line-u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API 플랫폼으로 B2B 솔루션부터 B2C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 ■ 기업개요

동사는 2012년 9월 26일 설립되어 2021년 3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33(역삼동, 라이프시맨틱스빌딩)에 소재하고 있다.

분기보고서(2023.09) 기준, 동사는 (주)뉴트라시맨틱스, (주)넥서스브릿지 총 2개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뉴트라시맨틱스는 디지털 기반 뉴트리션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위해, (주)넥서스브릿지는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및 헬스케어 상품 판매를 위해 2023년 신규 설립되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송승재 대표이사(36.42%)이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총 지분의 38.07%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 61.93%는 (주)레이(5.23%), 소액주주(56.70%)의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동사의 종속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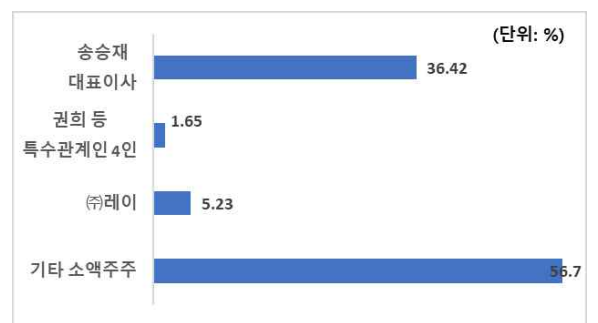
회사명	업종	2023년 9월 기준 자산 (백만 원)
(주)뉴트라시맨틱스	디지털 기반 뉴트리션 제품 개발 및 판매업 등	2,833
(주)넥서스브릿지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 헬스케어 상품 판매업 등	796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2]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주주명	지분율(%)
송승재 대표이사	36.42
권희 등 특수관계인 4인	1.65
(주)레이	5.23
기타 소액주주	56.70
합계	100.00

[그림 1] 동사의 주주구성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주요 사업

동사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풀라인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는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API 플랫폼으로 B2B 솔루션부터 B2C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는 보험사, B2C 헬스케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주요 사업 영역은 ①고객사(3rd Party)가 디지털 헬스 서비스와 솔루션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정보/인공지능/보안 기술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사업(라이프레코드), ②라이프레코드 기반 디지털 헬스 솔루션 사업, ③라이프레코드 기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Software as a Medical Device)인 디지털치료기기 사업, ④의료기기 유통 사업, ⑤디지털뉴트리션 사업, ⑥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 헬스케어 상품 판매업 등이다.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사업은 B2B, B2G 사업이고, 디지털 헬스 솔루션 사업은 B2C 사업이며,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과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헬스케어 상품 판매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 중인 신규사업으로 각각 자회사인 (주)뉴트라시맨틱스와 (주)넥서스브릿지를 통해 영위하고 있다. 2022년 매출은 대부분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사업 부문(99.99%)에서 발생하였다. 2023년 3분기부터는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2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사업이 54.4%,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이 45.2%,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헬스케어 사업이 0.4%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표 3] 동사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현황

구분		내용
디지털헬스 기술플랫폼	Liferecord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헬스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의료정보기술, 빅데이터 처리기술,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인공지능 기술 및 보안 기술을 통합 제공하는 기술플랫폼
디지털헬스 솔루션	Dr.Call(닥터콜)	재외국민과 내국인이 국내 의료인에게 전문 의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
	H.AI(하이)	건강검진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미래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솔루션
	OHA(오하)	암 경험자 간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돕는 지식공유 서비스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	호흡기질환 환자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로 확진 임상을 완료한 파이프라인
	레드필 케어	암 환자의 재활을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로 탐색 임상을 완료한 파이프라인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	efiL Nutrition 등	건강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 및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품 및 솔루션 등 제공
데이터기반 금융상품 / 헬스케어 상품 판매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유무형 상품(보험, 상조, 여행, 건강식품 등) 제공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동사의 ESG 활동



환경(E) 부문에서, 동사는 디지털 건강관리 솔루션 개발·공급 업체로 환경경영과 관련하여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지만, 환경적으로 유해한 공정을 수행하지 않으며, 모든 경영 활동에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여 관련 법상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조회되지 않았다. 또한, 기업의 환경 관련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50%를 재활용, 점심시간 조명과 냉난방 전원 끄기를 통한 전력 절감, 계단 이용하기, 플라스틱 또는 일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캠페인 수행 등 일상 속 탄소저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 동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겸직하는 직원을 운용 중인 가운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임직원 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충처리제도 운영, 경영실적,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건강검진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의 직원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동사의 사업보고서(2022.12)에 따르면, 동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43.4%이며 동 산업의 여성고용비율 평균은 25.6%이다. 또한, 동사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57.1%로 동 산업 평균인 76.0%를 하회하지만,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8.3%로 동 산업 평균인 68.8%를 상회하였다.

[표 4] 동사 근로자 성별에 따른 근속연수 및 급여액

(단위: 명, 년, 백만 원)

성별	직원 수			평균 근속연수		1인당 연평균 급여액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29	1	30	2.3	7.7	63.0	68.2
여	22	1	23	1.8	5.3	36.0	51.9
합계	51	2	53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2),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NICE디앤비 재구성



지배구조(G) 부문에서, 동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 포함해서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감시장치로서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통해 배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와 권한을 규정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선임, 부패 발생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 수행, 협력사 대상 공정거래제도 제정과 운영,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 기업 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

## II. 시장 동향

### 디지털 헬스케어를 경험한 소비자의 높은 만족도, 의료비 절감 효과로 관련 시장 확대 전망

코로나19 이후 전자건강기록(EHR)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서비스,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었다.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참여 기업은 개인정보인 의료 데이터 보호를 위해 각국의 법률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특성 및 전망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자건강기록(Electronic Health Records, 디지털 형태로 수집된 환자 및 인구집단의 건강 정보)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인공지능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의료 데이터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 목적을 지닌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주에 포함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비대면 진료의 시행,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의료 데이터 수집 확대, 맞춤형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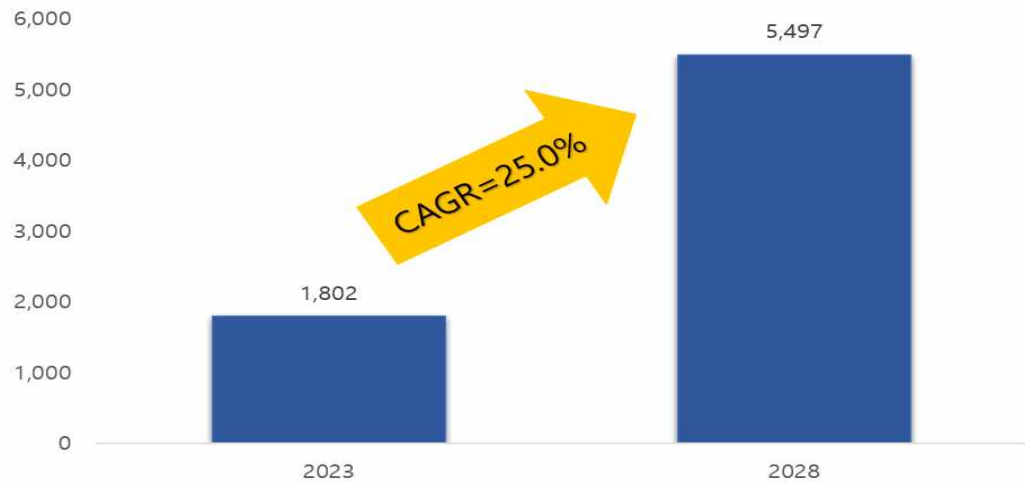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3년에 1,802억 달러였으며, 2028년까지 연평균 25.0% 성장하여 5,49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대상에 따라서는 의료진, 기업, 개인고객(환자 포함) 중 개인고객(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시장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비대면 진료를 포함하는 원격의료 시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특히,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379만 명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이용 건수는 3,661만 건에 달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 활용 역량에 따라 상이하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2년에 실시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자 경험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2.3%로 집계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7.9%가 추후 비대면 진료를 다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병·의원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 거주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대도시·중소도시 거주자의 만족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비대면 진료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11월 시행된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시장을 형성한 점을 감안,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역할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비대면 진료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마약류 등 처방제한의약품의 처방, 대리처방 등을 해결하고자 DUR 시스템 개선,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부적절한 비대면 진료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 MarketsandMarkets(2023), NICE디앤비 재구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2022년도에 발간한 <품목별 ICT 시장동향: 디지털 헬스케어> 보고서에 따르면, ①수술을 진행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수술 부위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는 기술 ②혈중 산소 포화도, 수면 데이터 등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개발 기술 ③의료 데이터 안정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하였으며, 의료비 절감(2019년 기준, 스위스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통한 의료 디지털화로 원화 기준 약 10조 7,099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하였음)에 효과적인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정부 주도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디지털 헬스케어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활용되는 개인 의료 데이터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약 40%를 점유(2021년 기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의료 정보의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 데이터를 연구용·상업용으로 활용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 절차 진행 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 데이터 보호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 경쟁업체 현황

동사는 의료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용 소프트웨어 개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동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 중인 기업들 역시 자체 개발한 헬스케어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나, 기업마다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데이터의 종류 및 분석기법에서 서로 차별화되어 있다.



[표 5] 동사의 경쟁업체 현황

기업	주요 내용
<b>동사</b> (라이프시맨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비대면 진료 시스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그치지 않고, 관련 사업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보험 등 건강 관련 금융상품과 연계한 사업 전개 중</li> <li>국내 최초로 개인 건강기록 기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상용화</li> </ul>
<b>뷰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성, 생체신호, 방사선 영상, 병리영상 등 의료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분석하여 질병 진단 및 예측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li> <li>국내 최초 인공지능 의료기기 'VUNO Med-BoneAge' 상용화 실적 보유</li> </ul>
<b>유비케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요양기관 전자의료기록(EMR) 시장점유율 1위 코스닥 상장 기업</li> <li>병원 진료 예약, 대기 순번 발급이 가능한 B2C 플랫폼 '똑딱' 앱 운영</li> <li>약국, 요양병원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통합경영솔루션 개발 및 공급</li> </ul>

\*출처: 각사 회사소개서, NICE디앤비 재구성

### III. 기술분석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에 인공지능, 의료빅데이터 적용을 통한 차별성 확보

동사는 ICT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플랫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공지능과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동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치료기기 분야의 개발 실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개인 건강기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을 상용화하였다.

#### ■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상용화

동사는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제공 사업,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헬스 관련 서비스는 의료진을 위한 전문가용 시스템이 아닌,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반 소비자와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쟁 서비스와 차별화되어 있다. 동사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의료마이데이터(병원에 흩어져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환자 유래 건강데이터, 유전체정보 등)를 활용하고 있다. 동사는 2019년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경제 3법’을 기반으로, 익명 처리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고 있다.

동사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는 고객의 개인건강기록을 분석,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발된 클라우드 기반 정보관리 플랫폼이다. 고객의 건강기록을 참고하여 금융상품을 설계하는 국내 보험회사에서는 라이프레코드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건강관리에 충실한 고객에게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이 출시됨에 따라 고객의 개인건강기록에 대한 기업 차원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동사는 국내 주요 보험회사와 라이프레코드 서비스 제공 및 보험사용 디지털 헬스케어 앱 서비스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이프레코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 활동량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보험사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국내 상급 대학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한 8억 건의 진료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질환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향후 특정 질병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한다. 라이프레코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신속한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의료마이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 시 의료정보 보호 관련 인증의 취득에 2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인 건강기록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개발 완료된 라이프레코드에 자사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하여 탑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한편, 동사는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인 ISO/IEC27017 인증, 의료정보 보호 관련 인증인 ISO/IEC 27799 인증 외 다수의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하여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적법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사는 외부에서의 침입 시도 탐지를 위해 보안전문업체를 통해 외부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림 3] 동사의 라이프레코드 사업 개요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 ■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비대면 진료 서비스 등) 개발 및 운영

동사는 B2C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운영 중이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Dr.Call, 이하 닥터콜), 인공지능 기반 질병 예측 서비스 솔루션(H.AI, 이하 하이), 암 환자 전용 정보공유 서비스 플랫폼(OHA, 이하 오하)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닥터콜’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2020년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를 포함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23년 6월 이후에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환자가 닥터콜 애플리케이션에서 혈압, 혈당, 심박수, 체온 등 기본 데이터를 입력 후 진료를 예약하면, 의료진이 전화진료, 화상진료, 2차 소견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닥터콜 애플리케이션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최초로 ‘나의건강기록(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구축한 앱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 중인 개인건강정보를 통합 제공)’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되어 투약정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의료진은 관련 데이터를 비대면 진료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닥터콜 서비스의 재이용률은 약 70%에 달했다. 닥터콜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에서는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 환자는 내국인, 재외국민 중 대면 진료 경험자,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 대상 환자(만성신부전증, 결핵, 당뇨병 포함 11개 질환에 한함), 섬·벽지 거주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소아 환자(휴일·야간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함) 등이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희귀질환자, 수술 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는 닥터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국내 7대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환자의 체온, 맥박 등 데이터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여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의사와 환자 간 영상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자 본인이 활력징후를 측정

후 해당 정보를 병원 정보 시스템에 전송하기도 하였다.

동사의 ‘하이’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질병을 예측하는 솔루션이다. 하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100만 건 이상의 코호트 데이터베이스, 건강검진 데이터를 포함한 총 5억 건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백내장, 골관절염 등 총 12개 질환의 2년 내 발생확률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한다. 동사는 12가지 질환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질환 예측 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진 및 단순 건강검진만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질병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건강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이는 지속적인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질병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하고 있다. 또한, 분석한 데이터를 단순 제공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보험설계 서비스 등 금융상품을 추천하기도 한다.

동사는 암 치료 및 극복을 위한 지식 공유 서비스 ‘오하’를 통해 검증된 암 완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암의 진단부터 치료, 수술까지의 과정에서 검증된 정보에 대한 환자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 시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오하는 환자의 암 치료 여정(진단,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재활치료)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정보 제공 플랫폼 대비 차별화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 ■ 환자 맞춤형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역량 보유

동사는 디지털 헬스케어용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 이외에도 호흡기질환 치료용/암 환자 재활용 디지털 치료기기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

국제 비영리단체인 디지털치료기기 협회(Digital Therapeutics Alliance)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 정의한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타 의약품과 동일하게 보험공제가 가능하여 의약품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기존 치료제와 비교 시 치료 효과가 동등하거나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환자의 목표 활동량을 설정하고 환자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이 디지털 치료제의 주요 접근법이며, PTSD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VR(가상현실)을 이용하는 방식, AR(증강현실) 기반 게임을 환자에게 처방하여 환자의 활동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비만 치료에 적용한 사례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식약처 승인 대기 중이지만, 미국에서는 FDA 승인 후 처방되고 있다.

동사는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시 치료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질환 및 사용자의 연령을 고려한 UI/UX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 수행 결과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치료 단계별 환자 맞춤 피드백을 제공한다. 동사는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디지털화된 임상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프로토콜 설계 시 신약개발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참여하고 있어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허가 취득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의 처방형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은 폐암,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퇴원 후 호흡 재활치료를 위해 개발되고 있다.

레드필 숨튼에는 환자가 스스로 호흡재활운동을 수행 및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의 목표가 자동 조절된다. 또한, 운동 전·후 심박수, 산소포화도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송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레드필 숨튼의 임상시험에서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률은 대조군, 실험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어 디지털 치료기기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동사는 레드필 숨튼의 유효성(대조군 대비 우월성) 입증에 위해 임상시험 디자인 재설계를 추진하였다. 후속 임상시험에서는 기존 임상시험 대비 피험자 수 확대, 시험군용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통해 시험군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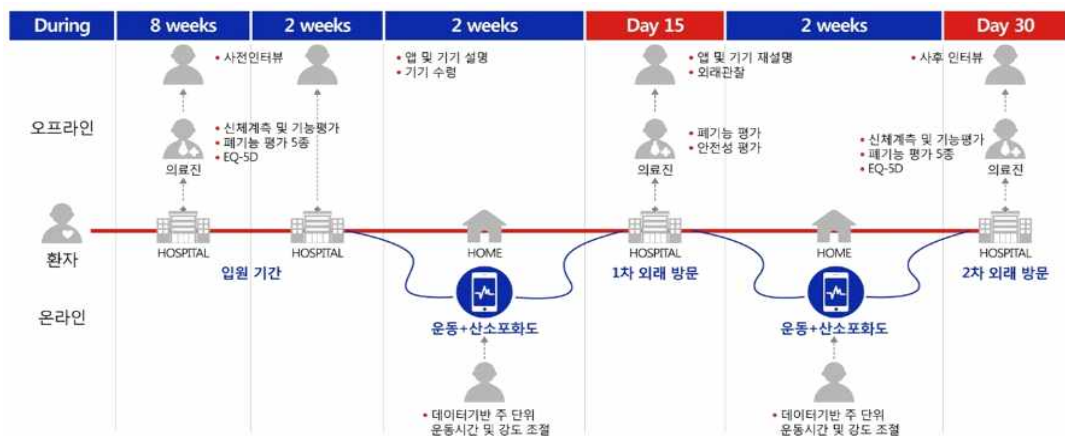
동사는 레드필 숨튼 이외에도 암 환자의 퇴원 후 재활, 식단, 운동량을 환자 스스로 관리하고, 환자의 생체정보를 의료진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케어’를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림 4] 동사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닥터콜) 사업 구조도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그림 5] 레드필 숨튼 기능별 프로세스



레드필 숨튼 기능별 프로세스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3.09)

## ■ SWOT 분석

[그림 6] SWOT 분석



## IV. 재무분석

### 매출 등락세 및 영업수지 적자 지속 중

과거 2개년간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2022년 매출이 감소하였고 영업수지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 신규 매출이 발생하며 최근 분기 실적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영업손실이 지속 중이다.

#### ■ 매출 등락세, 2023년 중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 신규 매출 발생

동사는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API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LifeRecord)’ 기반 솔루션 구축 및 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전년 대비 129.4% 증가한 26.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이후, 2021년 전년 대비 73.9% 증가한 46.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2개년 연속 매출이 성장했으나, 2022년 B2B 계약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9.2% 감소한 28.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매출이 하락하였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은 28.2억 원으로 매출 발생은 대부분 디지털 헬스 기술플랫폼 사업 부문(99.99%)에서 발생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닥터콜, H.AI, OHA) 매출이 일부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2020년 약0.6억 원, 2021년 약 0.1억 원이었으며, B2C사업으로 매출 비중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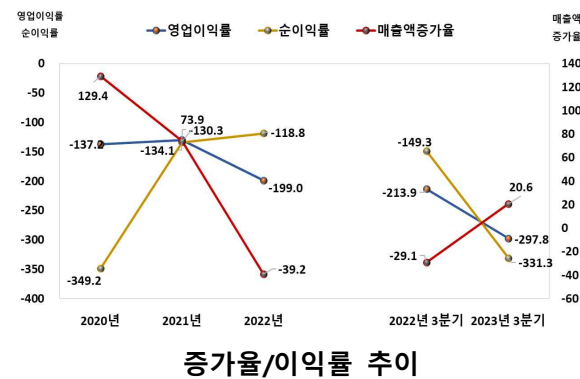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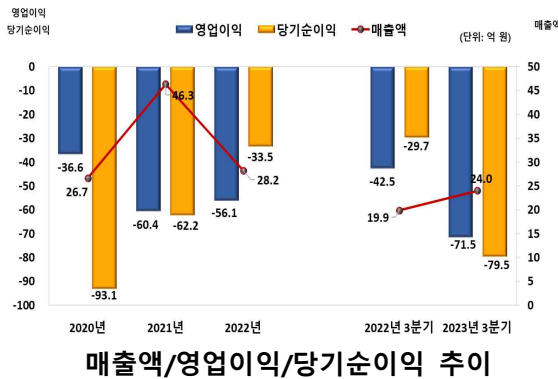
한편, 2023년 중 자회사 (주)뉴트라시맨틱스와 (주)넥서스브릿지를 설립하며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소 및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제품 및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과 데이터 기반 금융상품 사업을 새로이 전개하였으며,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의 매출 발생(10.9억 원) 등에 힘입어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19.9억 원 대비 증가한 24.0억 원을 기록하였다.

#### ■ 영업적자 지속 중

동사는 최근 3개년간 2020년 36.6억 원, 2021년 60.4억 원, 2022년 56.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수지 적자를 지속하였다. 2021년에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B2B 매출 관련 외주비용,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사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및 연구개발비 증가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영업손실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적자를 지속하였다. 최근 3개년간 순손익은 2020년 93.1억 원, 2021년 62.2억 원, 2022년 33.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2020년 및 2021년 금융비용 등으로 전체수지가 영업수지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으며, 특히 2020년에는 기발행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평가손실 56.1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적자 폭이 확대되었으나, 2022년에는 전환사채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이익 60.8억원, 파생상품평가손실 28.3억원)반영에 따른 영업외수지 개선으로 영업손실 대비 적자 폭이 감소하였다. 한편, 2023년 3분기에는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71.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영업손실 42.5억 원 대비 영업손실이 확대되었다.

[그림 7]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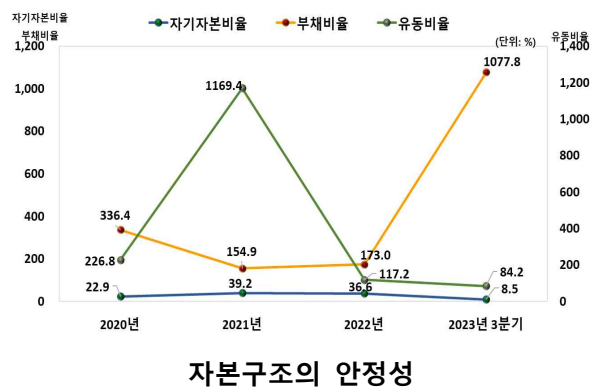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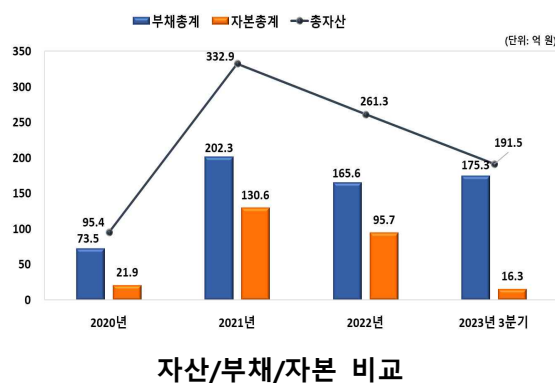
## 2021년 코스닥 시장 상장하며 자본 유입, 2022년 및 최근 분기 재무건전성 저하

2020년 336.4%의 부채비율을 기록한 이후, 2021년 154.9%, 2022년 173.0%를 각각 기록하며 부채비율이 개선된 수준을 나타냈다. 적자 지속에 따른 누적 결손 확대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따른 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며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이 확충되어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2022년 적자시현에 따른 누적결손금 확대로 자기자본이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3개년간 유동비율은 2020년 226.8%에서 2021년 1,169.4%로 개선되었으나, 2022년 117.2%로 다시 하락하며 불안정한 수준을 보였다. 한편, 2023년 3분기 기준 순손실 규모 확대에 따른 이익잉여금 감소로 부채비율은 1,077.8%, 유동비율은 84.2%로 재무건전성이 전년 말 대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6]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3분기	2023년 3분기
매출액	26.7	46.3	28.2	19.9	24.0
매출액증가율(%)	129.4	73.9	-39.2	-29.1	20.6
영업이익	-36.6	-60.4	-56.1	-42.5	-71.5
영업이익률(%)	-137.2	-130.3	-199.0	-213.9	-297.8
순이익	-93.1	-62.2	-33.5	-29.7	-79.5
순이익률(%)	-349.2	-134.1	-118.8	-149.3	-331.3
부채총계	73.5	202.3	165.6	179.4	175.3
자본총계	21.9	130.6	95.7	98.4	16.3
총자산	95.4	332.9	261.3	277.7	191.5
유동비율(%)	226.8	1169.4	117.2	1239.3	84.2
부채비율(%)	336.4	154.9	173.0	182.4	1077.8
자기자본비율(%)	22.9	39.2	36.6	35.4	8.5
영업현금흐름	-12.7	-50.7	-51.2	-35.9	-79.6
투자현금흐름	-3.5	-27.8	-110.2	-69.9	68.8
재무현금흐름	54.7	264.7	-4.3	-1.6	-9.4
기말 현금	55.1	241.4	75.7	133.9	55.6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의료 AI 상용화, 영업양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2023년 태국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콕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콜 타이’를 선보였고, 플랫폼의 편의성을 인정받아 태국 의료기관과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동사는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수요가 높은 질환에 대해 진료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한 의료 AI 솔루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영업양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 ■ 태국 상급병원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공급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동사는 2023년 8월에 태국 방콕의 상급종합병원인 라마9병원(Praram 9 Hospital)과 기술실증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병원의 의료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버추얼센터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 ‘닥터콜 타이’ 공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동사는 국내에서 내국인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콜’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고객의 플랫폼 접근성을 향상하였다. 닥터콜 타이는 태국 모바일 메신저 점유율 90% 이상인 ‘라인’을 통해 진료 예약, 결제,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동사는 태국 현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서비스 현지화를 위한 절차를 완료하였고, 라마9병원 외에도 태국 국공립병원들의 피부과, 성형외과 분과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 ■ 정밀의료 AI 솔루션 상용화 준비, 영업양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동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닥터앤서2.0’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닥터앤서 2.0사업은 위암, 폐암, 간암, 고혈압, 당뇨 등 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용 AI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사는 가정용 혈압 예측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영상을 통한 피부암(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흑색종 등) 검출 및 진단보조 소프트웨어에 대해 확증 임상시험 승인을 취득하였다. 특히, 피부암 검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제는 환자의 의료 진입장벽을 낮추고, 피부암 조기진단 사례의 확대를 위해 식약처에서 선정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로 지정된 바 있다.

또한, 남성형 탈모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용 AI 개발 진행을 위해 모발 밀도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동사의 모발 밀도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두피 이미지를 인식하여 모발 수를 추정, 탈모 환자의 모발을 스캔하여 이식 가능한 모발 수를 추정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다. 동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탈모 치료를 위한 확증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11월 22일 자로 (주)세레스에프엔디의 제약 사업부문을 양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제약 원료 생산을 통한 매출 확대 및 향후에는 건강기능식품은 물론 의약 완제품, 기능성화장품의 원료와 완제품 생산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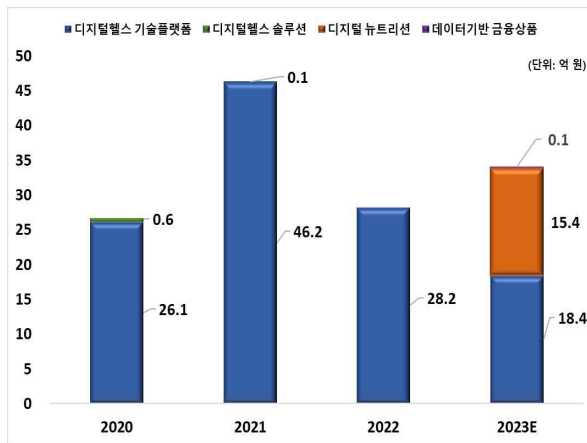
## ■ 동사 실적 전망

동사는 재무제표 기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었다. 동사가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기기 ‘레드필 숨튼’은 임상시험에서의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위해 후속 임상시험 절차를 진행 중으로, 해당 디지털 치료기기의 상용화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영업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점이 적자 확대 요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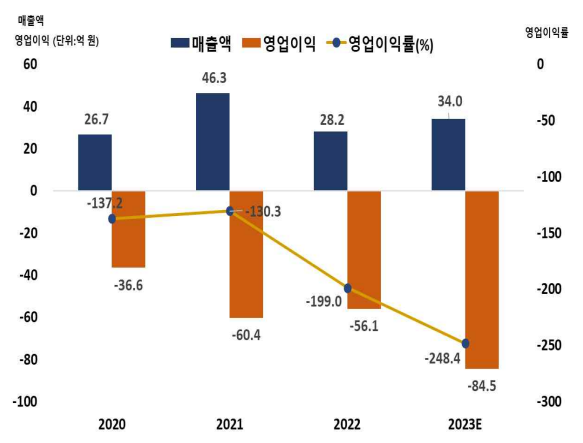
2023년도 상반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한 9.2억 원을 기록했으나, 2023년 중 자회사 (주)뉴트라시맨틱스와 (주)넥서스브릿지를 설립 후 디지털 뉴트리션 사업 등에 따른 매출 발생으로, 2023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19.9억 원 대비 증가한 24.0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회복세를 보였다.

또한, 동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을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공급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한 매출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림 9] 동사의 사업 부문별 실적 및 전망



[그림 10] 동사의 연간 실적 및 전망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7] 동사의 사업부문별 연간 실적 및 분기별 전망

(단위: 억 원,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0	2021	2022	1Q2023	2Q2023	3Q2023	2023E
매출액	26.7	46.3	28.2	5.8	9.2	24.0	34.0
디지털헬스 기술플랫폼	26.1	46.2	28.2	5.8	9.2	13.0	18.5
디지털헬스 솔루션	0.6	0.1	-	-	-	-	-
디지털 뉴트리션	-	-	-	-	-	10.9	15.4
데이터기반 금융상품	-	-	-	-	-	0.1	0.1
영업이익	-36.6	-60.4	-56.1	-20.3	-42.7	-71.5	-84.5
영업이익률(%)	-137.2	-130.3	-199.0	-351.3	-466.1	-297.8	-248.4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2.12), 분기보고서(2023.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투자의견 없음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1] 동사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증권(2023년 11월 23일)